

병술년 동안거 결제 법문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은 벼랑도 문도 없다

조계종 해인총림 등 5대총림과 90여 선방에서는 12월 5일 병술년 동안거를 결제했다. 조계종 제방 선원에서는 방장·조식 스님들이 결제법어로 2000여 수행자들의 3개월간 이어질 용맹정진을 격려했다.

동산 양계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오니 어떻게 피하리까?" 이에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입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네 몸을 얼려 죽일 것이고, 더우면 더운 대로 네 몸을 찌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여름의 더위는 간 곳이 없고 이제 반대로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삼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증생의 분상에서 더우나 추우나 그 근심은 이래저래 끝이 없습니다. 사실 추운 것이나 더운 것이나 알고 보면 그 도리가 그 도리입니다.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동산선사는 "왜 추우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 남자는 마치 사냥개가 흠뻑물을 좇아가는 것처럼 연거푸 섬들을 오르내리려 하려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소견 없는 앙퐁한 소리를 해대는 높은 열이 죽거나 썩 죽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이 한개가 아니라 백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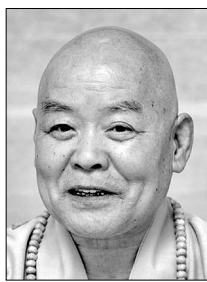
결제대중들이여! 추위도 더위도 없는 좋은 곳은 벼랑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몸과 목숨을 둘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근심이 없어지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추위와 더위가 있어 그대들의 목숨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생안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안거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이 산승에게 "더위는 그만두고 추위가 닥쳐오면 어떻게 피하리오?"라고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무엇하리오"라고 매정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후략>

부지런히 정진하되 물러서지 말라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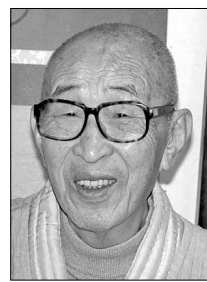


해 등으로 전해져 고금을 비추네 육 조의 선공이 흐르는 적손의 집안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되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 광경의 무명을 당장에 떨쳐내어 / (증생의) 현 신발을 (여래의) 새 신발로 갈아 신고 / 한 곡조 거문고 소리로 밝은 달을 노래하니 / 사해의 향기로운 바람이 여기에서 일어나도다.

영취산에서 갈라진 부처님의 법 등이

최상승의 관문 똑바로 뚫어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불신충만우법계(佛身充滿于法界) 부처의 몸이 우주에 충만한데 만상지중독로신(萬象之中獨露身)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난다. 초조공검무인식(超造空劫無人識) 고 많이 이해하고자하여 널리 글과 그 내용을 추구하여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르지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함이 도리어 장애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오직 아이에게 많은 우유를 먹일 줄만 알고 소화하고 소화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니, 三乘의 수 도인들은 다 이 모양이다. / 모두가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는구나. / 이른바 지식과 이해도 소화하지 못하면 독약이 되니, 모두가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 할망이요, 眞如의 길에는 이러한 일은 없다. / 그므로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은 없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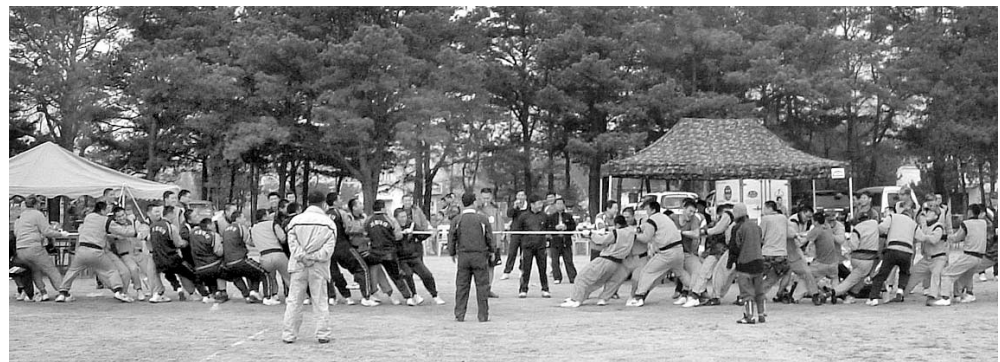
옛 사람은 마음이 영리하여 겨우 한 마디를 들으면 문득 배움을 끝났

12월 1일 현재까지 발표된 결제법어입니다. 전문과 이후 발표되는 총림의 법어는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뛰며 '범우애' 만끽했어요

원주불교축구단 군부대 찾아 축구·줄다리기로 '화합'



원주불교축구단 회원들과 육군 제3139부대 장병들이 축구시합 후 줄다리를 하고 있다.

원주불교축구단(회장 정두환)이 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로 군 포교를 시작했다. 원주불교축구단은 11월 26일 육군 제3139 부대에서 '국군장병 포교 및 위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군 장병과 원주불교축구단 회원 40여명, 조계종 포교사단 원주지역봉사팀(팀장 전승호)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영내에 위치한 군법당 청통사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법회에서 원주불교축구단 지도법사 원각 스님(성불원 원장)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법문을 했다. 이어 원주불교축구단은 영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와 줄다리로 군장병들과 호흡을 함께했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원주

불교축구단에서 준비한 각종 먹거리로 장병들을 위로했다. 행사는 원주불교축구단과 군장병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사랑으로'와 '만남'을 노래하며 마무리했다. 정두환 회장은 "내년 5월부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축구를 매개로 해 포교와 신행의 즐거움을 찾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는 생활 속의 불교와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하며 지난 8월 발족했다. 지난 10월에는 원주지역 종교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종교인들간 친목도모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송년·후원의 밤

본사와 함께 군부대에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공동으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회장 성행)가 12

월 7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년클럽에서 '2006 좋은벗 풍경소리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3-9836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화'를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봉사로 추진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부대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당을 지원. 후원금 지원: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만인동참 ARS: 060-700-0108

알 리 는 말 씀

대한불교 불입증은 금번 제3대 종정 추대와 관련하여 다소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현 종정을 포함한 집행부는 종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국의 사부대중은 숙지하시고 본연의 생활에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1. 대한불교 불입증 前종정 우경조스님은 2006년 3월 18일사직함바 있음
우경조 前종정께서는 2006년 3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총무원장인 경암스님에게 종단인장 일체를 내리시며 "오늘부터 종정직무대행을 하라."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구어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경조스님께서는 2006년 7월 19일 장종조 태허 흥선 대법사의 열반추모제때 느닷없이 후임 종정을 추대하겠다고 하시며 종법인 종정추대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우도명에게 종정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정 경조스님은 2006년 3월 18일 사직하였고, 나아가 위촉장을 받은 우도명은 종정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하고 일단 종정인 경조스님은 후임 종정을 위촉함으로써 완전하게 종정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2. 새로 임명된 우도명은 종정될 자격이 없음
구 종정추대법 제1조에 의하면 종정에 위촉이 되려면, 첫째 연령 40세 이상이고, 둘째 법계1급 대법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종도규제법제32조에서 대법사 법계는 종정이라는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종헌·종법상 종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법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법사란 법랍이10년 이상이고, 학력을 겸비한 자 또는 종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구 종도규제법제31조)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조 前종정께서는 무자격자를 종정으로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는바 이는 종정추대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3. 종정 유고 사태
전 종정 경조스님이 2006년 3월 18일 사직후 2006년 7월 19일 후임 종정이라고 하면서 무자격자를 위촉하였다가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하였는바 이는 종헌 제110조 단서 조항의 종정의 위촉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구 종정추대법제4조에 정한바와 같이 종정유고(사직에 의한 결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4. 종정 유고에 따른 긴급비상총회의 개최 등
위와같이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이 사직됨으로 인하여 종정의자리를 비워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종정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원장을 포함한 종회의원 스님들은 2006년 7월 21일 19:00시 부산시 소재 보명사에서 긴급비상총회를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2006년 3월 18일자 종정 직에서 사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아울러 무자격 종정을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하여 종정자격정지의 결정을, 후임종정으로 박해경 스님을 추대하였으나 위 박해경 스님은 신병을 이유로 사양하는 바람에 2006년 8월 16일 총무원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개최하여 2006년 7월 21일 비상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승인한 후 새로운 종정으로 면철스님을 추대하고 아울러 총무원장에 경암 스님을 재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5.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종회가 소집된 경우는 위와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데 前종정인 경조스님은 2006년 11월 8일 불교계 신문지상을 통하여 "7월 19일 장종조 태허 흥선 대법사의 열반추모법회 때 본인의 제자인 도명스님에게 종정 유고 후의 종단 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취지에서 종정유고 후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위촉장을 수여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공백한 변명을 하였지만, 위 공고문과 같이 종정 유고후의 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종헌·종법에 없는 불법임에 분명합니다. 종정 추대법 제4조에서 종정이 유고시 총무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종헌·종법을 위반한 처사에 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조스님은 비상총회가 불법으로 소집된 것처럼 역지를 부리지만, 비상총회 소집의 계기는 종정이 사직함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종정의 자리를 비워둘수 없어서 2006년 7월 19일 송화사에서 종단 일원, 원로의원, 종회의원 등이 긴급 비상총회 개최를 발의하고, 2006년 7월 21일 부산소재 보명사에서 재적의원28명중 25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8월 16일 제3차 중앙총회 및 전국승려회의를 총무원에서 개최하고 재적의원28명중 24명이 참석하여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7항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종회는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하여 종정권한이 없는 경조스님은 종회에서 총본산으로 지정한 송화사를 제적하고 재선인한 총무원장 경암스님에 대하여 재해임, 채탈도첩 운운하는 협박을

자행해놓고 불교계 신문에 광고문 까지 게재하여 대한불교 불입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혼란 속에 빠진 불입증 재건에 앞장선 총무원장 경암스님이 마치 해종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광고함으로써 선량한 스님들과 신도들을 다시한번 분노하게 하였으니 이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이에 경조스님께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조스님은 분명히 3월 18일 본인이 사직 했으면서도 무자격 종정을 또 추대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스님들의 분노를 사신바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간 행한 스님의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 보시고 참회정진 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대한불교불입증의 큰 스님을 잃는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종권탈취를 음모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계속하여 해종행위를 한다면 불입증단으로서의 종헌·종법에 따라 이에 대법사인 법계를 삭탈하고 제명 처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7. 전국의 대한불교 불입증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 불입증은 前종정 경조스님이 이미 사직함으로인해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총무원장이 재선임되어 안정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종단 스님들은 앞으로 함집 부끄러움 없이 대한불교불입증의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 불입증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종단이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오니 부디 혼들림 없이 집행부에게 두터운 신임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 불 교 불 입 증
종 정 면 철
원로위원장 정 관 총무원장 경 암 호법위원장 현 각 종회의장 월 정 교육위원장 지 학 포교위원장 혜 경 총회부장 상 운 서을, 경기 총무원장 지 철 부산, 경남 총무원장 법륜
입 원 : 만호, 인전, 성해, 모성, 법진, 해광, 효은, 인수, 선를, 대원, 해월, 대덕화, 자비심, 연화, 석운, 성원, 진성, 화산, 원덕, 혜련, 관음, 무상신, 송광, 수진, 오론, 성혜옥, 건성, 송목, 법천, 묘훈